

# 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무산...사업협약 해지 결정

### 민간사업자 의무 불이행에 사업수행능력 부족 판단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생태 공원 검토

전반 논란을 빚었던 목포시의 '삼학도 5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년 3개월 여 만에 최종 무산됐다. 6·1지방선거에서 호텔 건립사업을 반대했던 박홍을 시장이 취임한 지 22개월 만이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29일 지난 2022년 1월 선정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지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키아일랜드(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스키아일랜드(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벨롭먼트에프비(주)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2월 민간사업자의 호텔설립 관련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목포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진행했는데, 관련 실과와의 협의 중 해당 사업용지가 재해 취약 지구라는 점이 주목 받았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 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협약 해지 처분 통보일인 2024년 4월 9일 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후의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또 2023년 6월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했던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변경 요청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존 제출서류와 변경요청 서류 모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반려했다.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제시한 사업비 3500억원의 5%인 17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야, 이를 부동산수익권증서로 제출했었다.

하지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목포시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됐으며, 보증금으로 내야 할 금액 175억

원보다 106억원이 부족했다. 민간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경우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 담보물로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애초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7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협약이행보증금이란 민간사업자의 사업중단 또는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비책이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행 의지 및 자본조달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체 납부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참여호텔 측의 투자 관련 결정서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는 이런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없었음에 따라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대체 납부방안 및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사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협약 위반사항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박홍을 목포시장이 29일 오전 삼학도 호텔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를 확정해 2024년 4월9일 사업협약 해지 처분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앞으로 삼학도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도

록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삼학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정병진 기자 jbs@kwangju.co.kr

## 영암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안전 버팀목 역할 '톡톡'

### 지난해 응급 상황 115건 처리 고령 1342가구 서비스 이용

영암군이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을 통해 115건의 고령 1인 가구 응급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지역자활센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응급관리요원 3명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는 고령자의 집에 활동 감지기 및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119 등과 연계하고 있다.

영암지역에서는 1342가구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난 한 해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영암지역자활센터가 115건의 응급 상황을 처리했다. 6시간 이상 활동 없음이 감지된 경우 726건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이 나왔다.

이달 8일에는 센터 응급관리요원 박복금씨가 이모(77·신북면)씨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그의 집으로 출동했다.

박 요원이 잠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이씨는 구토를 하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박



영암지역자활센터 응급관리요원 3명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작동 시범을 보이고 있다. <영암군 제공>

요원은 119를 불러 이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박 요원의 빠른 조치 덕분에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다.

박씨를 포함한 응급관리요원 3명은 하루 평균 90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도입한 보건복지부 3차 신규

장비 영암군 설치율은 올해 1월 기준 99%이다. 이는 전국 평균 61.9%, 전남 64.6%를 크게 웃돈다.

영암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 신안소방서,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 전달



신안소방서 직원들이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직원들 고향사랑기부제 확산되길"

신안소방서 직원 101명이 신안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운동의 목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신안소방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지난 2022년 11월 개소된 신안소방서는 지난해 화재 317건, 구조 458건, 구급 4213건 등 총 4988

건의 소방 활동을 펼치며 주민 3만8000여명의 안전지킴이로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의 재난 발생에 즉각 대응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들의 뜻깊은 기부에 감사하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이 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숲이 울창하고 꽃이 만발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씨월드고속훼리 '사랑 나눔' 제주도 투어 운행



씨월드고속훼리 '제주도 사랑투어'에 참가한 목포·무안·신안·진도 학생들이 이학영 회장과 제주 여행길에 오르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보호시설 청소년 대상 20번째 진행

씨월드고속훼리(주)가 목포·무안·신안·진도 학생들과 20번째 '제주도 사랑투어'를 떠났다.

올해 '제주도 사랑투어' 여행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씨월드고속훼리의 퀴제누비아II호를 타고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1998년부터 목포권 보호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도 사랑투어를 떠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의 여행이다.

참가자들이 제주 여행을 위해 탑승한 퀴제누비아II호는 야간선박 퀴제누비아호의 쌍둥이 선박이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14.5m, 2만6000t 규모로 건조된 뒤 올해 2월 28일 운항을 시작했다. 1010명의 여객과 480여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24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참가 학생과 인솔 교사 150여 명은 제주의 유명 관광지인 비자림, 함덕 해수욕장, 항공우주 박물관 등을 찾았다.

이학영 씨월드고속훼리(주)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제주도 여행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장난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해마다 목포시에 지역 인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전남경찰청 불뿔봄 지원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1000만원을 기탁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영광찰보리 어울마당 개최

### 영광군, 5월10일~11일 경연대회·공연 등 다채

영광군이 올해 10회째를 맞은 '영광찰보리 어울마당' 행사를 오는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연다.

'찰보리! 건강보리! 행복보리!'를 주제로 여는 영광찰보리 어울마당은 군남면 지내를 돌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경연 대회와 체험·전시행사, 각종 공연, 베품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보리밭 보물찾기와 찰보리 시 낭송, 허수아비 만들기, 춤 경연, 한지 보리·보리대 공예 등 즐길 거리도 가득하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관광객을 위해서는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투어 기차를 마련했다.

박홍영 영광찰보리어울마당 추진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열심기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참여해 즐기는 축제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찰보리 들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세한대 휴먼서비스학과,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시상 봉사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2024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시상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휴먼서비스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2024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기간 중 창원국제사격장을 방문해 대회조직위원회와 참가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단 시상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개최된 2024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로 26개국 234명이 참가해 31개 세부종목에서 210개의 메달을 놓고 겨뤘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최영수 휴먼서비스학과장은 "평소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노력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선수단 시상과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니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국제적 대회를 완벽하게 진행한 장애인사격월드컵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는 2024 파리 패럴림픽 MQS가 부여되는 주요한 대회로 참가 국가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를 총괄한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은 "국제대회 국내 개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각국 최고 수준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과 경쟁하며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라며 "한국 장애인사격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성인학습자 학생을 대표해서 참석한 박용호 한길씨엔서 대표는 "장애인사격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회 균등의 사회가 되도록 대회조직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최영수, 정두배, 최영희, 최영환 교수와 김영호 후원회장, 박용호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는 만학도로 구성된 4년 정규 대학 성인학습자반으로 현재 7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태국, 베트남, 대만, 홍콩 등지에서 세계문화유산 자원조사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정규과정을 마치면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해 전문기관 취업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력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